



## 관내 동향

### □ 사천시, 항공우주청 유치 위해 민·관·학·연과 함께 총력

- 세계 7대 항공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‘항공우주청’ 설립이 가시화되며 유치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.
- 사천시는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4월 12일 회의를 개최하였다. 회의에서는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항공우주청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확정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.
- 또한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은 4월 4일 하영제 국회의원과 함께 권영세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하며 시 차원의 준비사항을 설명했다.
- 권 부위원장은 사천의 항공산업 인프라와 여건, 우주산업에의 기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당선인께서 직접 했던 약속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.
- 사천시의회도 ‘항공우주청 사천설립’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과 ‘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’을 채택하여 힘을 보탰다.

### □ 관내 기업 숨통,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

-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.
- 항공제조업은 작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업종으로 처음 지정돼 올해 3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.
- 이번 연장 결정으로 도내 218개 항공제조업체, 1만2천147명의 종사자들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향상, 직업능력 개발훈련 훈련비 인상,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등 각종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.

## □ 사천시, 항공우주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현장설명회 개최

- 사천시는 4월 7일 경상남도, KOTRA,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을 초청해 항공우주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.
- 이번 설명회는 사천시의 주력산업인 항공우주분야 사업장을 방문해 투자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타깃기업의 발굴 및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.
- 이에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항공업계 동향 등을 공유하고,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용당(항공MRO)일반산업단지의 공사 진행 상황, 투자 여건 등을 확인하였으며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기업들을 둘러보고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.

## □ KAI, 이스라엘 IAI로부터 제트기 구조물 수주

- 한국항공우주산업(이하 KAI)은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(IAI)으로부터 2030년까지 총 7300여억원 규모의 G280 비즈니스 제트기 동체 연결 복합재 구조물을 신규 수주했다고 7일 발표했다.
- 해당 구조물은 항공기 주익 아래 위치하여 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며 KAI는 2019년과 2020년 G280 주익과 중앙동체 사업을 계약한 바 있다.
- 또한 양사는 무인기 공동개발 및 성능개량은 물론 유무인복합체계(MUM-T), 공격드론 분야에서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- 안현호 KAI 사장은 "기체구조물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다"며 "글로벌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사업 확대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"고 설명했다.



## 도내 동향

### □ 항공우주청 설치 및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 정책 포럼 개최

- 4월 13일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‘항공우주청 설치 및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 정책 포럼’이 개최됐다.
- 포럼에는 경남도, 사천시,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·학·연·관 전문가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와 국정과제 반영 촉구 및 경남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.
- 포럼은 신만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본부장의 ‘국내 항공우주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’ 발표를 시작으로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장의 ‘경남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계획’, 명노신 경상대 교수의 ‘항공우주청 경남 설치 타당성 및 산업현황’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.
-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경남지역 항공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인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이 반드시 실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경남도의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.

### □ 항공우주기업 73개사 ‘항공우주청’ 서부경남 설치 건의문 전달

- KAI 등 경남 소재 항공우주기업 73개사는 “항공우주청의 서부경남 설치”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3월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14개 기관에 전달하였다.
-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항공우주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‘항공우주청’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서부경남은 항공우주산업의 70%가 집적되어있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심장으로 산·학·연 클러스터가 잘 형성돼 있어 최적지임을 밝혔다.
- 건의문은 인수위를 비롯하여 청와대, 국회, 과기부, 산업부 등 총 7개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등 정당대표, 경상남도, 경상남도의회 등에 전달되었다.

## □ 경남TP, 도내 항공기업 6개사와 美ADSS 참가

- 경남테크노파크(이하 경남TP)가 도내 항공 중소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도내 6개 항공기업과 ‘2022 항공우주 및 방산 공급자 총회 (ADSS)’에 참가한다.
- ADSS는 미국 워싱턴주와 보잉사가 공동 주관하는 격년제 행사로 4월 11일부터(현지시간) 3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온·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한다.
- 경남TP는 해외 기업과 도내 기업 간 B2B 상담 지원과 경남 항공기업 홍보에 중점을 두고, 참가기업에 참가비, 운영비,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.
- 노충식 경남TP 원장은 “이번 참가를 통해 도내 항공기업의 우수성을 꾸준히 알리고 세계 유수의 항공 클러스터들과 교류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 경남TP는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.



## 국내 동향

### □ 산업부, 국산 헬기 활용 확대를 위한 회의 개최

-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는 3월 16일 KAI 본사에서 국방부, 방사청, 경찰청, 해경청, 소방청, 국립공원 항공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산 헬기 활용 확대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.
- 참석자들은 현재 기관별 헬기 개별구매방식을 일괄구매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헬기수리 및 기술정보 공유 등을 위해 전 부처가 참여하는 운영기관 기술협의체를 운영과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.
- 국내 공공헬기는 총 117대이며 이중 국산헬기는 13대가 운용 중이다. 절반 이상은 21년 이상 된 해외도입 헬기로 가동률이 떨어져 산불과 같은 긴급 상황에도 보유 헬기의 일부만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.
- 산업부는 공공헬기 내수를 확대하여 국내 헬기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헬기 동력전달계통 국산화 개발사업을 통해 국산헬기의 성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.

## □ 국토부, 연말까지 국제선 50% 회복을 위한 방안 추진

- 국토교통부(이하 국토부)가 올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2019년의 50% 수준까지 회복하는 ‘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’을 추진한다.
- 이에 따라 현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할 예정이다.
- 1단계에서는 국제선 정기편을 주 100회씩 늘려 5월에는 주 520회, 6월에는 주 620회 운항한다.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완화하고 부정기편 운항 허가 기간도 길어진다.
- 2단계는 7월부터 엔데믹까지 시행되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300회씩 늘리고 지방 공항 운영 시간이 정상화된다.
- 본격적인 엔데믹 시기에 접어들면 마지막 3단계로 모든 항공 정책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.
- 정부는 3단계 시점을 10월로 예상하고 있으며, 계획대로 증편될 경우 11월에는 코로나 이전의 51%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이다.

## □ 과기부, 누리호에 탑재될 큐브위성 개발 시험 실시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과기부)는 6월 1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시 탑재될 성능검증위성 개발이 마무리 단계이며 처음으로 큐브위성을 달아 개발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.
- 성능검증위성은 누리호의 발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위성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우주기술들을 확인하기 위한 탑재체와 함께 큐브위성 4기가 탑재되어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.
- 큐브위성은 과기부 우주전문인력양성의 일환으로 국내 4개 대학(조선대, 서울대, 연세대, 카이스트) 학생들이 약 2년 동안 개발한 것으로 지구 대기관측 데이터 수집,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이번에 실시한 시험에서는 성능검증위성이 누리호에서 분리된 후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.

## □ 한화디펜스,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영국에 자주포 수출 박차

- 한화디펜스가 세계 1위 방산업체 美록히드마틴과 손잡고 영국의 자주포 획득사업(MFP) 공략에 나선다.
- 본 사업은 영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AS-90 자주포를 대체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이 약 1조2천억원에 달하여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한화디펜스는 이를 위해 영국 레오나르도, 피어슨 엔지니어링,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즈, 캐나다 수시 디펜스 등과 '팀 썬더(Team Thunder)'를 결성하였고 이번에 영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록히드마틴을 추가 멤버로 맞게 되었다.
- 한화디펜스는 K-9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-9A2 자주포를 제안할 예정으로 화력·방호력·기동성·생존성 등의 성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.



## 해외 동향

## □ 아마존, 위성 인터넷 사업 본격화로 스페이스X와 경쟁

- 아마존이 로켓 3사와 대형 계약을 맺고 우주 기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했다.
- 아마존은 현재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 3,236기를 쏘아 올려 전 세계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'프로젝트 카이퍼'를 추진하고 있으며 100억 달러(약12조 2천억원)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.
- 이에 아마존은 보잉과 록히드마틴의 합작회사인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(UCA), 프랑스에 본사를 둔 유럽 위성발사 기업 아리안스페이스, 아마존 의장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민간 우주개발 업체 블루오리진과 5년에 걸쳐 83회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계약을 맺었다.
- 이로써 위성 인터넷 분야의 선두주자로 이미 2,000기 이상의 위성을 띄워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- 아마존은 후발주자로서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의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.

## □ 에어버스, '식용유+폐유' 로 항공기 운항 성공

- 에어버스가 식용유와 폐유가 주원료인 100% 지속가능 항공연료(이하 SAF)로 세계 최대 여객기 A380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.
- SAF는 폐유, 사탕수수 등 바이오 대체 연료를 사용해 생산한 항공유로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80%까지 줄일 수 있다.
- 에어버스는 3월 25일 프랑스 툴루즈 블라냐크 공항에서 3시간 동안 시험 비행을 한 후 4일 뒤 툴루즈에서 니스까지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.
- 이에 에어버스는 21년 3월 A350, 10월 A319neo 시험비행에 이어 A380까지 성공하면서 2035년까지 세계 최초 무공해 항공기를 출시 하겠다는 계획에 한 발짝 다가갔다.

작성일	2022. 4. 14.(목)	보고일	2022. 4. 14.(목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최고봉(055-831-3471)